

한국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김 남 석* 조 도 희**

< 목 차 >

- | | |
|-----------------|--------------------------|
| I. 서 론 | Ⅲ. 학위논문 관리 및 이용
실태 분석 |
| Ⅱ. 학위논문의 자료적 의의 | 1. 소장현황 |
| 1. 자료적 가치 | 2. 유통 및 관리실태 |
| 2. 자료적 특성 | 3. 이용실태 |
| 3. 생산 | Ⅳ. 결론 및 제언 |
| 4. 서지통정 | |

I. 서 론

학위논문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존의 학술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수정 발전시키며, 주제와 연구방법이 참신하고 독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수하고 중요한 1차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학위논문은 포괄적인 문헌 조사를 통한 선행연구가 개관되어 있고,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2차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학위논문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입수자체에 소홀할 뿐 아니라 입수된 자료마저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도서관인들의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사서

식부족, 학위논문 정리 기술에 대한 지식부족, 개개 도서관이 당면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의 열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33만 6천여 편의 학위논문 자료 가운데 많은 분량이 정보재로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당해 대학원이나 도서관에 보관되거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학위논문의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이들 연구는 선행연구 개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규모가 비교적 큰 대학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시기도 이미 수년이 경과되었다. 그 이후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관리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위논문 상호교환 중지³⁾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적인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 관리 및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는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자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확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한국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학위논문의 유통과 관리, 조직 및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학위논문 자료의 보다 활발한 활용에 기여코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대학중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109개⁴⁾ 대학의

3)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는 1986년 제6회 세미나에서 학위논문 교환 및 정리문제를 거론하였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였고, 1988년 제8회 세미나에서 학위논문교환문제를 현행원칙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1989년 제9회 세미나에서 학위논문 상호교환을 주제로 설정하여 상호교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요청하면 상호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편, 회원고 편집, 1994. pp. 272-274). (밑줄친 '상호교환'은 '상호협력'의 오타로 사료됨)
전술한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와 더불어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도 1987년 8월 21-22일 군산대학 도서관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학위논문 활용에 대한 대책'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각 대학마다 타대학 학위논문을 모두 수집관리하기 보다는 기왕에 집중수집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에서 망라수집되도록 지원해 주고 집중정리케하여 상호협력망을 통해 복사 제공 등을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각대학이 노력토록 함"이라고 의결하여 사실상 학위논문의 상호교환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편, "제39차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의록," 국립대학도서관보, 6(1988), pp.75-77.)

4) 교육연감: 1994년판, 서울: 일진기획, 1994.

도서관을 대상으로 1995. 3. 7~27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91개 도서관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어 약 8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통계처리는 통계 처리 패키지인 SA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학위논문의 범주에는 학사학위 논문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는 학사학위 논문이 도서관 자료로서의 가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도서관도 전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대상을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109개 대학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교육통계연보(1994년판)」⁵⁾에 의하면 1994년 현재 국내 대학 총수는 160개교에 이른다. 그 중에서 일반대학원만 설치된 대학이 18개교, 특수대학원만 설치된 대학이 6개교, 그리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함께 설치된 대학이 85개교 등이며, 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51개교이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유통이 상호교환을 근간으로 한 기증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학위논문이 생산되지 않는 대학에서는 그 수집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⁶⁾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는 1959년 McPhie의 1952년에서 1957년 사이 미국의 대학에 접수된 사회과학 분야 205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용빈도를 조사한 연구⁷⁾를 비롯하여 이용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⁸⁾이 있으며, 학위논문 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1977년

5) 교육통계연보 : 1994년판.

6) 조호일, "학위논문 자료의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계명연구논총(계명실업전문대학), 2輯(1984), p.7. [전체 소장 학위논문의 91.7%가 대학원이 선치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에 물려있는 것으로 조사됨]

7) C. J. McPhie, "Factors Affecting the Value of Dissertations," *Social Education*, Vol. 24 (1960), pp.375-377. (2번 이상 대출 75%).

8) L. M. Raisig, and F. G. Kilgour, "The Use of Medical Theses as Demonstrated by Journal Citations 1850-1960,"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25 (1964), pp.93-102.

— J. L. Moore, "Bibliographic Control of American Doctoral Dissertations," *Special Libraries*, Vol. 63 (1972), pp.227-230, 285-291.

— C. J. Boyer, *The Doctoral Dissertation as an Information Source: A Study of Scientific Information Flow*.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Inc., 1973.

Patterson 등이 정리업무 간소화를 목적으로 미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⁹⁾가 있다.

일본에서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로는, 1974년 寺村由比子の 학위논문의 의의와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3편의 논문이 있다.¹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선행연구에 있어서 학위논문 관리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의 학위논문의 경우 DAI를 통해 서지조사가 가능하고, UMI를 통해서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로는, 1972년 박희영의 학위논문의 목록법에 관한 연구¹¹⁾, 1980년¹²⁾과 1981년¹³⁾ 김만석의 학위논문 정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84년¹⁴⁾과 1985년¹⁵⁾ 조호일의 학위논문 정리, 목록기술형식 및 검색방법에 관한 연구, 1984년 윤병태의 학위논문의 특성, 수서, 정리, 보존 등에 관한 연구¹⁶⁾, 윤상기의 학위

- R. T. Bottle, "Scientists, Informations Transfer and Literature Characteristic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9(1973), pp.281-294.
- A. Hay, and S. Maddock, "The Contribution of Postgraduate Thesis Research to the Published Literature of Human Geography in the United Kingdom," *Social Science Information Studies*, Vol. 1(1981), pp.165-172.
- 9) K. Patterson, C. White, and M. Whiltak, "Theses Handling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21(1977), pp.274-283.
- 10) 寺村由比子, "學位論文の意義と利用," *藥學圖書館*, 19輯(1974), pp.109-122.
- 寺村由比子, "學位論文の二次資料," *ドクメンテーション研究*, 第28卷, 第12號(1978), pp.599-608.
- 行藤洋二, "博士學位論文の索引作成", *ドクメンテーション研究*, 第29卷, 第2號(1979), pp.49-54.
- 11) 박희영, "학위논문목록법소고," *도서관*, 제27권, 제11호(1972), pp.14-15.
- 12) 김만석, "석박사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에 관한 소고," *도서관논고*(홍익대 도서관), 2輯(1980), pp.95-103.
- 13) 김만석, "석박사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도서관연구*, 제22권, 제5호(1981), pp.11-16.
- 14) 조호일, "학위논문자료의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계명연구논총*(계명실업전문대학), 2輯(1984), pp.45-67.
- 15) 조호일, "학위논문의 목록기술형식 및 검색방법고찰," *도서관학논집*, 12輯(1985), pp.133-160.
- 16) 윤병태, "대학도서관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국립대학도서관보*, 2輯(1984), pp.1-20.

논문의 서지활동에 관한 연구¹⁷⁾, 1985년 최달현, 변우열의 학위논문 정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¹⁸⁾, 민기남의 학위논문 관리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¹⁹⁾, 1987년 윤희운의 학위논문 수집에 관한 연구²⁰⁾, 1988년 손문철의 국내 30개 종합대학의 학위논문 관리실태를 조사한 석사학위 논문²¹⁾, 1989년 정진규의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²²⁾, 1993년 조인숙의 학위논문 인용실태 분석을 통한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연구²³⁾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국내 25-39개의 종합대학교 도서관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가 한국의 전체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위논문 관리 현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위논문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에는 학위논문의 관리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조사대상을 한국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109개 대학 또는 기관중 91개 대학도서관으로 확대하여 학위논문을 생산하는 한국의 전 대학도서관을 총망라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도 학위논문 관리에 대한 가장 변화가 많았던 최근(1995년)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학위논문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정책, 학위논문의 관리와 조직을 위한 전산화 및 도서관간 상호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하였다.

-
- 17) 윤상기, "한국에 있어서의 학위논문의 서지활동,"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10주년 기념논문집, (1984), pp. 211-249.
 18) 최달현, 변우열, "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 도서관학논집, 12輯(1985), pp. 161-195.
 19) 민기남, "학위논문의 관리에 관한 연구: 국내 종합대학교 도서관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20) 윤희운,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수집방안," 도서관학논집, 14輯(1987), pp. 217-239.
 21) 손문철, "석박사학위논문 관리에 대한 제문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8.
 22) 정진규,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3) 조인숙,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輯(1993, 6), pp. 205-219.

II. 학위논문의 자료적 의의

1. 자료적 가치

학위논문은 대학원에서 시험을 포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제출되는 논문으로 해당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해 심사된 것이기 때문에 특창적인 연구나 지식에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가치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Tate는 학위논문의 학술정보적인 잠재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동결자산(Frozen asset)”²⁴⁾으로 표현하였고, Bottle은 “최신정보로서의 잠재적 정보원(Untapped potential source of advance information)”²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은 주제지식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참고 문헌 및 각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비공식 서지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 관한 조사를 할 때 학위논문은 훌륭한 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위논문 자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견해와는 다르게 근래 학위논문의 지나친 양산에 따른 질적인 하락으로 학위논문은 연구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적 훈련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학위논문의 학술적 공헌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²⁶⁾

그러나 회의적인 내용이나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의 학위논문을 과소평가로 일축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들 중 다수의 필요한 정보는 연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24) V. D. Tate, "Defrosting a Frozen Asset: The Publishing of Doctoral Disserta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14(1953), p.45.

25) R. T. Bottle, p.287.

26) S. Vickers, "Sources of Access to Theses," *Interlending and Document Supply*, Vol. 11(1983), pp.142-144.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학위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론의 전개방법 등은 초보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위논문에는 학술잡지의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는 생략되는 연구의 절차, 과정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 등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와 학습이라는 공동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보면 학위 논문은 다른 형태의 자료에 비해 더욱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자료적 특성

학위논문은 도서관의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위논문은 학위 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미공간의 학술 보고서이다.²⁷⁾ 한국에서는 교육법시행령 제136조 「논문의 공표」에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공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은 공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된 주제의 특수성, 공간자료로서의 일정부피의 논문 면수, 한정된 수요에 의한 시장성 등의 원인으로 공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드(Wood)는 학위논문을 보고서나 회의록 같은 미간행 자료로서 공식채널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회색문헌(Grey Literature)”²⁸⁾의 범주에 넣고 있다.

둘째, 학위논문은 취급하는 주제범위가 너무 좁고 깊게 다루고 있다.²⁹⁾ 따라서

27) 조호일, “학위논문 자료의 정리관 위한 조사연구,” p. 48.

28) David Wood, “Grey Literature—the Role of the BLLD,” *Aslib Proceedings*, Vol. 34, No. 11-12 (1982), p. 459.

29) Donald Davinson, *Bibliographic Control*, 2nd ed. London, Clive Bingley, 1981. p. 101.

학위논문의 정리에는 보다 세분된 분류와 주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행본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할 경우 일반 단행본보다 정리가 까다로워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비가 소요된다.

셋째, 학위논문은 면수가 균등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공학계열과 의학계열 그리고 기술과학 계열의 학위논문을 보면 면수가 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학위논문을 단행본과 같이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넷째, 학위논문은 제본상태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표지가 더욱 빈약하다. 따라서 자료의 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료 조직적인 측면에서 학위논문은 목록기술형식, 작성카드의 종류 등에서 간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³⁰⁾ 따라서 학위논문을 일반 단행본과 같은 자료 조직 방법에 불합리하게 적용시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학위논문의 특성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위논문은 발행부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발생시기가 거의 동일하다. 학위논문의 발행부수는 개별적으로는 소량이지만 하나 한꺼번에 발행되어 거의 같은 시기에 교환자료로 배포되어 이를 수집하는 도서관에서는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수와 정리를 위한 적절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위논문은 최근에 관심있게 논의되고 있는 자료의 digital화가 가장 용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위논문 작성자는 PC를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에서 인쇄된 책자형 논문과 함께 논문을 수록한 디스켓을 제출받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용이하게 digital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0) 조호일, "학위논문 자료의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p. 50.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볼 때 학위논문은 Katz³¹⁾나 Kaiser³²⁾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행본이나 다른 자료들과는 분리하여 별치자료로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학위논문자료의 조직을 위한 이론과 기술을 일반 단행본과는 달리 자료의 입수, 정리, 열람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적어도 한국내의 대학도서관들간에라도 통일성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하며, 도서관간에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공동대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생 산

학위논문은 그 생산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인력과 전문지식의 숙달을 요구하게 된 점, 둘째는 학문의 세분화 경향으로 과거에 없던 학문분야가 개발되고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한 점, 셋째는 고등교육이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학원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위논문의 증가현상에 대해 외국은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한국은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을 함께 살펴보았다.

1960~1967년대 미국 및 서유럽에서도 눈에 띄는 현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60년대와 비교해 증가속도가 주춤하는 추세이며, 미국에서도 1970년대

31) W. Katz, *Collection Development: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p. 201. [Katz는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주요 자료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이외의 기타 출판물로서 주제보다는 형태에 따른 관리가 더 편리한 자료로서 마이크로 형태 자료, 보고서, 팸플렛과 사본 및 보존문서 등을 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위논문을 보존문서에 해당되는 자료로 다루고 있다.]

32) F. E. Kaiser, *Handling Special Materials in Libraries*. New York,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74. p. 101. [Kaiser는 자료의 성격상 일반정서와 분리해서 독립된 집서가 불가피한 자료로서 참고자료, 표준과 규격자료, 번역자료, 회의록 등과 함께 학위논문을 들고 있다.]

이후 그 이전과 같은 급격한 증가현상은 없으나, 연간 약35,000편 정도의 한결같은 제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61년에서 1970년까지 약 340,000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의 반이상인 182,000편이 1961년에서 1970년의 10년간에 생산된 것이었다.³³⁾ 1971년에서 1980년의 10년 동안에는 약 350,000편 이상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서 이것은 1861년에서 1970년의 100여년간 집계되었던 양을 능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975/1976년에 생산된 약 35,000편에 이르는 박사학위 논문수는 1965/1966년의 16,928편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55년에 2,310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던 것이 1993년에는 39,61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³⁴⁾하여 약 17배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의 증가현상을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에 수록된 것³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한국의 학위논문 생산추이³⁶⁾

수록연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계		
	수록논문수	증 감	수록논문수	증 감	수록논문수	증 감	
1945 / 68	2,178		10,885		13,063		
1969 / 70	850		3,650		4,500		
1971 / 72	436	기 준	1,898	기 준	2,334	기 준	
1972 / 73	475	+39	2,371	+473	2,846	+512	

33) D. Wolfe and C. V. Kidd, "The Future Market for Ph.D.'s," *Science*, Vol. 139(1971), p. 784.

34) 日本總務廳統計局 編, 日本統計年鑑, 第44回(1995). 東京, 日本統計協會, 1993. pp.689, 6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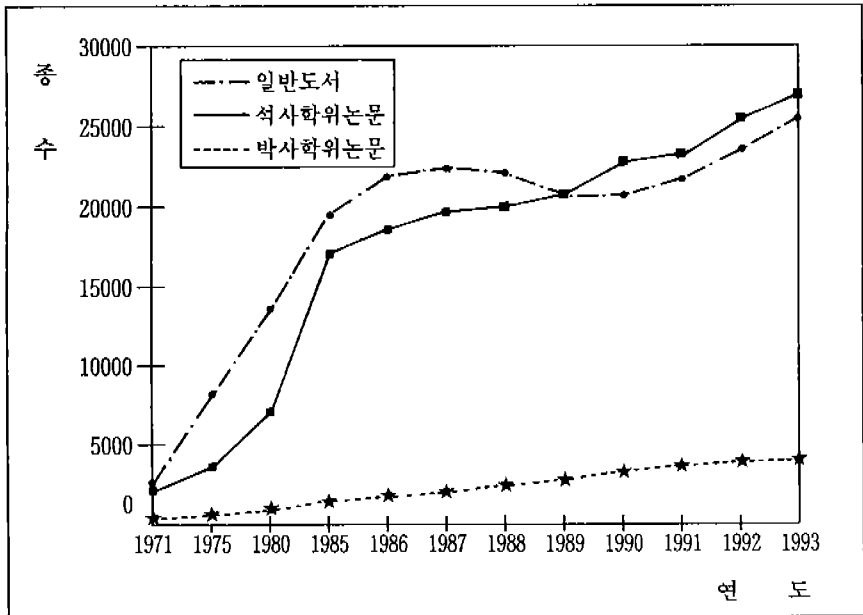
35) 한국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은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서울: 국회도서관)에 연도별로 수록되고 있으며, 박사학위 수여통계는 교육(문교)통계 연보를 비롯한 여러 통계자료에서 수록하고 있으나, 석사학위 수여통계는 교육(문교)통계 연보에서조차 수록하지 않고 있다.

36)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제1집-제25집.

수록연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계	
	수록논문수	증 감	수록논문수	증 감	수록논문수	증 감
1973 / 74	600	+125	2,628	+257	3,228	+382
1974 / 75	984	+384	3,038	+410	4,022	+794
1975 / 76	521	-463	3,511	+473	4,032	+10
1976 / 77	237	-284	4,432	+921	4,669	+637
1977 / 78	251	+14	4,559	+127	4,810	+141
1978 / 79	377	+126	3,659	-900	4,036	-774
1979 / 80	521	+144	5,294	+1,635	5,815	+1,779
1980 / 81	643	+122	7,318	+2,024	7,961	+2,146
1981 / 82	699	+56	8,622	+1,304	9,321	+1,360
1982 / 83	844	+145	12,089	+3,467	12,933	+3,612
1983 / 84	1,134	+290	13,571	+1,482	14,705	+1,772
1984 / 85	1,420	+286	16,300	+2,729	17,720	+3,015
1985 / 86	1,644	+224	17,131	+831	18,775	+1,055
1986 / 87	1,924	+429	18,512	+1,381	20,436	+1,810
1987 / 88	2,353	+416	19,697	+1,185	22,050	+1,601
1988 / 89	2,566	+229	19,843	+146	22,409	+375
1989 / 90	2,764	+196	20,759	+916	23,523	+1,112
1990 / 91	3,346	+568	22,752	+1,993	26,098	+2,561
1991 / 92	3,523	+185	23,296	+544	26,819	+729
1992 / 93	4,097	+576	25,619	+2,323	29,716	+2,899
1993 / 94	4,198	+108	26,954	+1,335	31,152	+1,443
계	38,585		298,388		336,973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전체의 증가현상을 보면, 1949년에서 1968년까지 20년간 생산된 학위논문의 수는 13,063편(박사: 2178편)인데 비해 1983/84년의 학위논문의 수는 14,705편(박사: 1134편)으로 1년간의 생산량이 20년간의 생산량을 능가하는 급증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시 1973/74년의 생산량 3,228편(박사: 600편)과 비교하면 10년간에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3/94년에 생산된 학위논문 수는 31,165편으로 1983/84년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10년간 약 2배의 증가를 보여 앞에서 살펴 본 다른 나라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준 1971년도)³⁷⁾



〈그림 II-1〉 일반도서와 학위논문의 발행총수 추이 비교³⁸⁾

37)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에서 1년 단위로 수록하기 시작한 것은 제3집(1971/72)부터이다.

38) 한국출판연감, 1994년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4. pp.761-767.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제3집-제25집.

한편, 일반도서 출판량과 학위논문의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II-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에 일반도서는 2,516종이 발행되었으며 1980년도에는 13,062종이 발행되어 10년간 약 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위논문은 같은 기간에 약 3.4배의 증가율을 보여 일반도서의 증가율이 학위논문을 능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학위논문의 증가율이 일반도서보다 급격한 것을 알 수 있다.

4. 서지통정

한국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이 수록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지는 1960년 재단법인 한국연구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1945-1960)」³⁹⁾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89편의 박사학위 논문과 1,897편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1회만 간행되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⁴⁰⁾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년간의 국가종합목록으로서, 1964년 「한국서목(1945~1962)」⁴¹⁾으로 간행되었다. 「한국서목」은 1945년 8월부터 1962년 말까지 18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도서와 정기간행물, 석박사학위 논문 및 악보, 지도등의 서지를 수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출판물 총목록」에는 1969년부터 학위논문 영역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학위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은 국내의 불완전한 납본으로 인하여 그 수록범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⁴²⁾되기도 하였으며, 그나마 1989년부터는 학위논문을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9) 한국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 1945-1960. 서울, 한국연구도서관, 1960.

40)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63- . 연간.

41) 한국서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64.

42) 민기남, 전거서, pp.18-19.

한편,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⁴³⁾은 1969년에 제1집(1945-1968)을 발간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발간하는 국가서지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과 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학위논문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4집(1992/93)부터는 「인문 사회과학」편과 「자연과학」편의 2권으로 분리하여 발행하고 있다.⁴⁵⁾ 1994년에 발행된 제25집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⁴⁵⁾, 1992학년도 후기졸업자와 1993학년도 전기졸업자로서 한국의 각 대학 및 기관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취득자 4,211명(명예박사 20명 포함)과 석사학위 취득자 26,954명 등 총 31,165명의 학위논문 서지를 수록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 1,303편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자 본인이 작성한 초록(약600자 기준)을 수록⁴⁶⁾하였으며, 저자로부터 초록수집이 불가능한 논문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초록을 작성하여 수록하고 있다. 1989년부터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에서 학위논문을 수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전체 학위논문을 수록하는 유일한 국가서지라 할 수 있다. 이외에 한국의 학위논문에 관한 서지로는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색인 또는 초록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전문학·협회에서 발행하는 주제별 서지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전산을 통한 서지통정 작업은 1993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⁴⁷⁾사업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94년 9월 CD-ROM으로 발간한 「한국문헌목록정보: 단행본」⁴⁸⁾를 들 수 있다. ‘학위논

43)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서울, 국회도서관, 1969-. 연간.

44)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제24집.

45)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1992.3-1993.2. 第25輯(1994). 서울, 국회도서관, 1994.

46) 제13집(1981/82)부터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초록을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47) 국립중앙도서관 전산 25621-253(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실시 / '93. 11. 3), 전산 25621-15(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세부추진계획통보 / '94. 1. 17), 전산 81323-174(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협약체결 / '94. 9. 5), 전산81323-175(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추진현황 및 실무안내 / '94. 9. 5), 전산 81323-38(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협조 / '95. 1. 23)

48) 한국문헌목록정보: 단행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4. CD-ROM.

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사업은 1993년 11월에 국내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103개 대학 또는 기관의 도서관에 동 사업에의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개 도서관에서 참여를 희망하여 이들 도서관들에 의해 학위논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172,987건(1983-1993)의 학위논문 데이터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에 제공하고 1994학년도 전기 학위논문부터는 학위수여 대학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요청하는 도서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문헌목록정보: 단행본」은 목록정보의 CD-ROM화를 위한 시제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목록 데이터를 CD-ROM 시스템으로 제작한 것이다. 「한국문헌목록정보」의 수록범위는 1945년부터 1994년 7월 말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단행본 및 학위논문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432,152건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위논문 목록은 207,852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검색방법은 서명전체, 서명단어, 저자명, 주제어, 분류기호 및 ISBN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검색요소를 이용한 조합검색과 검색요소의 어근(語根)을 이용한 어미(語尾) 절단검색도 가능하다. 검색된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편집할 수 있다.

Ⅲ. 학위논문 관리 및 이용실태 분석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위논문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994년판 「교육연감」에 수록된 대학 중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109개 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 도서관의 학위논문 관리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91개 도서관(약 83%)으로 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분석은 도서관의 업무 구분에 따라 1. 소장

현황, 2. 유통 및 관리 실태, 3. 이용실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항목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현황

소장현황에서는 각 대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학위논문수와 학위논문을 장서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 소장량은 학위논문 관리조직, 인적구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 학위논문 소장 현황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1 만권 미만	27	32.1
	1 만 ~ 3 만권	21	25.0
	3 만 ~ 5 만권	9	10.7
	5 만 ~ 8 만권	11	13.1
	8 만권 초과	16	19.0
	계	84	100.0
무	응	7	
답			

먼저, 각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에서와 같이 1만권 미만인 도서관이 27개관(32.1%), 1만-3만권인 도서관이 21개관(25.0%), 8만권을 초과하는 도서관이 16개관(19.0%), 5만-8만권인 도서관이 11개관(13.1%), 3만-5만권인 도서관이 9개관(1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한 8개도서관은 별도의 학위논문 통계를 내지 않는 도서관들이었다.

1945년에서 1993년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수는 336,973편이며, 이 가운

데 최근 10년간 생산된 학위논문수가 238,698편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소장중인 학위논문수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호일의 조사⁴⁹⁾에 따르면 1983년을 기준으로 2년간 평균 증가수를 보면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도서관의 경우 연간 3,139권이 증가하였던 것에 비하면, 학위논문의 생산량은 급증하였으나 상호교환의 위축으로 인하여 소장량의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간 학위논문 소장량의 차이가 대단히 많아서 최저 1,000권 정도에서 최고 200,000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장서수에 학위논문의 포함 여부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모두 장서수에 포함시킨다.		53	58.9
박사학위 논문만 포함시킨다.		6	6.7
장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0	33.3
기타(본교 학위논문만 포함)		1	1.1
계		90	100.0
무	응	답	1

학위논문을 장서수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Ⅲ-2〉와 같이 모두 장서수에 포함시키는 도서관이 53개관(58.9%), 포함시키지 않는 도서관이 30개관(33.3%), 박사학위 논문만 포함시키는 도서관이 6개관(6.7%), 기타(본교 학위논문만 포함) 1개관(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 1개관이었다.

1983년 조호일의 조사⁵⁰⁾에 의하면,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도서관의 경우 장서수에 포함시키는 도서관이 88.2%, 포함시키지 않는 도서관이 11.8%로 나타났으며, 1984년에 민기남의 조사⁵¹⁾에 의하면 장서로 등록하는 경우가 76.9%, 등록하지

49) 조호일, 전계서, p. 8.

50) 조호일, 전계서, p. 9.

51) 민기남, 전계서, p. 49.

않는 경우가 23.1%였던 것에 비교하면 학위논문을 장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도서관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2. 유통 및 관리실태

가. 수서

한국에서의 학위논문 수서는 대부분 대학도서관 또는 기관 상호간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위논문 저자 개인에 의한 기증분도 소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 관리, 제공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개의 도서관에서 학위논문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학위논문을 수집, 정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수집을 포기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위논문에 대한 각종 서지의 발간으로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조사에 쉬워지고 있지만 학위논문을 입수하기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도서관을 통하여 바로 입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Boy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위논문의 이용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 학위논문 수집에 대한 도서관의 기본 입장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른 자료와 동일시한다.	35	38.5
	기증은 하되 수집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35	38.5
	본교 학위논문만 관리한다.	18	19.7
기	타	3	3.3
	계	91	100.0
무	응		
	답		

학위논문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표 Ⅲ-3>과 같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른 자료와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5개관(38.5%), 타기관에 기증은 하되 수집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5개관(38.5%), 본교 학위논문만 관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8개관(19.8%), 기타 3개관(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호일의 조사⁵²⁾에 의하면 “가급적 많은 양을 수집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82.3%로 응답했던 것에 비해 학위논문 수집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도서관수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수집에의 적극적인 면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적극적인 도서관이 35개관(38.5%), 적극적이지 않는 도서관이 56개관(61.5%)으로 나타나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위논문 수집 정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학위논문 수집에 적극적이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를 요인별로 보면, 인력과 공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20개관(44.4%), 인력부족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13개관(28.9%), 공간부족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9개관(20.0%), 기타 3개관(6.7%)의 순이었으며 기타 3개관 중 2개관은 수집자체의 어려움을 들고 있었다.

이는 학위논문을 취급함에 있어서 인력부족과 공간부족 양자 모두 문제가 되지만 인력부족이 보다 심각한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인력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 학위논문 교환 현황은 <표 Ⅲ-4>와 같다. 먼저 수증현황을 보면, 10개교 이하로 응답한 도서관이 32개관(45.7%), 11-20개교로 응답한 도서관이 23개관(32.9%), 30개교 초과로 응답한 도서관이 8개관(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21개관이었다.

52) 조호일, 전계서, p.10.

〈표 III-4〉 학위논문 교환 현황

구 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도서관수	비율 (%)	도서관수	비율 (%)
10 개교 이하	32	45.7	15	18.1
11 ~ 20 개교	23	32.9	19	22.9
21 ~ 30 개교	6	8.6	8	9.6
30 개교 초과	8	11.4	21	25.3
교환하지 않는다.	1	1.4	16	19.3
기타(대학원에서 발송)			4	4.8
계	70	100.0	83	100.0
무 응 답	21		8	

다음으로 기증현황을 보면, 30개교 초과로 응답한 도서관이 21개관(25.3%), 11-20개교로 응답한 도서관이 19개관(22.9%), 기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6개관(19.3%), 1-10개교로 응답한 도서관이 15개관(18.1%) 등의 순이었으며, 무응답이 8개관이었다.

민기남의 조사⁵³⁾에서 30개교를 초과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48.7%였던 것에 비하면 약 10년 사이 그 비율이 20-30%정도 낮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학위논문 상호교환 중지가 점차 확산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정 리

학위논문은 일반 단행본에 비해 정리방법에서의 간략화를 통한 인력 및 경비의

53) 민기남, 전계서, p.47.

질감이 요구된다. 특히 학위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일반 단행본에 비해 훨씬 좁고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행본과 동일한 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일반 단행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인력과 경비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인력부족으로 나타나 결국에는 학위논문 수집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내 대학도서관에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정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의 등록형태에 대해, 모든 학위논문을 등록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47개관(52.8%), 선별하여 등록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8개관(42.7%), 기타(등록치 않음) 4개관(4.5%)의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2개관이었다.

최달현과 변우열의 조사⁵⁴⁾에 의하면 학위논문을 등록하는 도서관이 87.5%였으며, 12.5%가 등록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할 때 학위논문을 등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며, 학위논문 생산량의 급증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여 선별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위논문을 선별하여 등록하는 38개 도서관의 경우 그 기준에 대해 학위종별(박사학위 논문만)로 응답한 도서관이 13개관(35.1%), 주제로 응답한 도서관이 13개관(35.1%), 학위수여기관으로 응답한 도서관이 9개관(24.3%), 일반대학원 학위논문만 등록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개관(2.7%), 기타 1개관(2.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 2개관이었다. 박사학위 논문만을 등록하는 도서관이 13개관으로 35%나 차지하는 것은 최근 학위논문의 양적 증가에 따른 석사학위 논문의 학문적 공헌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54) 최달현, 변우열, 전게서, pp.170-171.

〈표 Ⅲ-5〉 학위논문의 정리형태

구 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도서관수	비율 (%)	도서관수	비율 (%)
단행본과 동일하게 정리한다.	61	67.0	53	58.2
단행본과 다른 방법으로 정리한다.	28	30.8	34	37.4
한국문헌자동화목록카드를 활용한다.	1	1.1	1	1.1
정리하지 않는다.	1	1.1	3	3.3
계	91	100.0	91	100.0
무 응 답				

학위논문 정리형태에 대해 〈표 Ⅲ-5〉와 같이 먼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단행본과 동일하게 정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1개관(67.0%), 단행본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28개관(30.8%), 한국문헌자동화 목록카드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개관(1.1%), 정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개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단행본과 동일하게 정리하는 곳이 53개관(58.2%), 단행본과는 다른방법으로 정리하는 곳이 34개관(37.4%), 정리하지 않는다는 곳이 3개관(3.3%), 한국문헌자동화 목록카드를 활용한다는 곳이 1개관(1.1%)의 순이었다.

손문철⁵⁵⁾에 의하면 일반도서와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는 비율이 68%였으며, 최달현, 변우열⁵⁶⁾에 의하면 일반도서와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석사학위 논문 79.4% 박사학위 논문 82.9%였으며, 민기남⁵⁷⁾에 의하면 76.9%가 단행본과 같

55) 손문철, 전게서, p.25.

56) 최달현, 변우열, 전게서, p.14.

57) 민기남, 전게서, p.53.

은 분류표를 사용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단행본과 동일한 형태로 정리하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손문철의 조사⁵⁸⁾에 의하면, 학위논문 정리 방법에 대한 반응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32%)에 비해 간결한 방향으로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64%)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본과 동일한 정리방법을 취하고 있는 도서관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볼 때 학위논문의 정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학위논문 정리 기간

구	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도서관수	비율 (%)	도서관수	비율 (%)
	1개월 미만	50	58.8	32	43.8
	1개월 ~ 3개월	13	27.1	22	30.1
	3개월 ~ 6개월	1	1.2	4	5.5
	6개월 초과	11	12.9	15	20.5
	계	75	100.0	73	99.9
무	응	16		18	
	답				

학위논문의 정리기간에 대해 〈표 III-6〉과 같이 본교 학위논문과 타 대학 학위논문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본교 학위논문의 경우, 1개월 미만이 50개관(58.8%), 1-3개월이 23개관(27.1%), 6개월 초과가 11개관(12.9%), 3-6개월이 1개관(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이 6개관이었다. 다음으로 타교 학위논문의 경우 1개월 미만이 32개관(43.8%), 1-3개월이 22개관(30.1%), 6개월 초

58) 손문철, 전계서, p. 29.

과가 15개관(20.5%), 3-6개월이 4개관(5.5%)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이 18개관이었다.

학위논문의 정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 높고, 특히 정리기간을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본교 학위논문의 경우 85.7%, 타대학 학위논문의 경우 73.9%로 나타나, 민기남의 조사에서 나타난 본교 학위논문의 정리기간 4.7개월, 타교 학위논문의 정리기간이 6.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정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민기남의 조사에서는 단행본과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76.9%)에 비해, 비교적 일반 단행본과 동일하게 정리하는 비율이 낮은(평균 62.6%)것 즉, 정리방법의 개선이 정리기간을 단축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전산화

학위논문에 대한 전산화는 현재 한국 대학도서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도서관 전산화의 일부분으로, 전산화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그리고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사업에의 참가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Ⅲ-7〉 학위논문 전산화 여부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전산화 되었다.	46	52.9
전산화 되지 않았다.	41	47.1
계	87	100.0
무 응 답	4	

59) 민기남, 전게서, p.56.

학위논문 전산화 여부에 대하여 <표 III-7>과 같이 46개관(52.9%)이 전산화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41개관(47.1%)이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무응답이 4개관이었다.

학위논문 전산화가 이루어진 46개관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에 대해 자관 소장분만 구축한 곳이 40개관(87.0%), 미소장분을 포함해서 구축한 곳이 6개관(13.0%)로 나타났다.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를 자관 소장분만으로 구축하는 도서관의 비율(87%)이 월등히 높은 것은 망라적인 서지조사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사업에의 참가여부에 대해 참가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56개관(68.3%), 참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26개관(31.7%)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이 9개관이었다.

56개관에서 이 사업에 참가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업에 참가하는 도서관수는 86개관⁶⁰⁾으로 상당수의 도서관에서 학위논문 관련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위논문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개개 도서관내에서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5년 1월 현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1994학년도 1학기 데이터가 접수된 도서관이 41개관, 1994학년도 2학기 데이터가 접수된 도서관은 14개관⁶¹⁾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60) 국립중앙도서관 전산 25621-253(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을 위한 현황조사실시/'93. 11.

3), 전산 25621-15(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세부 추진계획동보/'94. 1. 17)

61) 국립중앙도서관 전산 81323-38(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협조/'95. 1. 23)

3. 이용실태

가. 열람

학위논문 열람부문에 있어서 학위논문을 소장하는 자료실명과 업무형태 그리고 인력 등은 자료 소장량이 그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람방식과 배가기준 등은 학위논문이 가지는 도서관자료로서의 특성에 맞추어 그 형태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람방식에 있어서 개가제와 폐가제는 서로 상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가제 열람방식의 큰 단점이라면 자료의 분실과 훼손 그리고 배열의 흠어짐을 들 수 있다.⁶²⁾ 미공간자료로서 대부분 기증과 교환에 의해 입수되는 학위논문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공간되는 자료에 비해 자료를 다시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학위논문은 제본상태가 일반도서에 비해 불완전하여 쉽게 훼손 또는 파손될 수 있으며, 일반도서에 비해 학위논문은 장정이 비슷하고, 자료의 두께가 얇아서 정확한 배열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위논문의 열람과 배열은 자료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그 방식을 결정하여 자료의 관리보존적인 측면과 이용상의 편리를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이 소장된 자료실명은 정기간행물실이 20개관(22.5%), 논문자료실이 19개관(21.3%), 학위논문실이 16개관(18%), 참고열람실이 13개관(14.6%) 등이며 전체적으로 대략 1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

최달현, 변우열의 조사⁶³⁾에 의하면 학위논문실이 37.5%, 정기간행물실이 약24%

62) 김세익, 도서관조직결렬론, 증보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pp.104-105.

63) 최달현, 변우열, 전거서, pp.28-29.

등으로 나타났고, 민기남의 조사⁶⁴⁾에 의하면 학위논문실 조직으로 학위논문실 분리가 30.8%, 정기간행물실 28.2%, 참고열람실이 20.5% 등으로 나타났으며, 손문철의 조사⁶⁵⁾에 의하면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자료실이 40%, 정기간행물실이 28.0%, 참고자료실이 24.0% 등으로 나타나 본 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선행연구의 경우는 학위논문의 소장량이 비교적 많고, 그 규모와 체계가 비교적 큰 종합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학위논문을 생산하는 한국의 모든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규모가 작고 학위논문 소장량이 적은 도서관에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자료실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에 비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관리부서의 업무 형태에 대해 다른 업무와 겸무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1개관(67.8%),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9개관(32.2%)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이 1개관이었다.

〈표 Ⅲ-8〉 학위논문 관리 전담 직원수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1 명	59	81.9
	2 명	11	15.3
	3 명	1	1.4
	4 명	1	1.4
	계	72	100.0
무	응	19	
	답		

학위논문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수에 대해 〈표 Ⅲ-8〉과 같이 1명이 59개관

64) 민기남, 전거서, p. 43.

65) 손문철, 전거서, p. 34.

(81.9%), 2명이 11개관(15.3%), 3명이 1개관(1.4%), 4명이 1개관(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이 19개관이었다. 무응답 19개관의 대부분은 다른 업무와의 겸무로 학위논문 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위논문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활용 형태는 직원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명이 26개관(50%), 2명이 14개관(26.9%), 3명이 5개관(9.6%), 4명이 4개관(7.7%), 5명, 7명, 11명이 각각 1개관(각1.9%)의 순이었으며, 무응답이 39개관이었다. 무응답 39개관은 전담 직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무와의 겸무 또는 보조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학위논문 관리에 있어서 보조인력의 활용은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개가제 열람방식을 채택할 경우 자료의 배열상태 유지를 위한 인력과 폐가제 열람방식을 채택할 경우 자료의 색출과 배가를 위한 인력은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각 도서관이 당면한 인력부족과 경비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표 Ⅲ-9〉 학위논문 열람 방식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개	가 제	71	78.0
폐	가 제	17	18.7
부	문 개 가 제	3	3.3
	계	91	100.0
무	응 답		

학위논문의 열람방식은 〈표 Ⅲ-9〉와 같이 개가제를 실시하는 곳이 71개관(78.0%), 폐가제를 실시하는 곳이 17개관(18.7%), 부분개가제를 실시하는 곳이 3개관(3.3%)으로 조사되었다. 부분개가제를 실시하는 3개관중 2개관은 학위종별에 따라

구분하며, 1개관은 연도에 의해 구분하는 곳이었다.

최달현, 변우열의 조사⁶⁶⁾에 의하면 개가제 60.0%, 폐가제 40%로 나타났고, 민기남⁶⁷⁾에 의하면 개가제 59%, 폐가제 30.8%, 부분개가제 10.2%로 조사되었으며, 손문철⁶⁸⁾의 경우는 개가제 56%, 폐가제 44%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학위논문 열람방식을 개가제로 실시하는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며, 부분개가제까지 포함한다면 81.3%가 개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위논문을 개가제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배열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자료의 훼손과 파손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학위논문은 부피가 얇고 장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열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서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은 장정이 불완전하므로 단행본에 비해 쉽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훼손된 자료는 수시로 보수 또는 다시 제본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원본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마이크로화하여 열람에 공헌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학위논문 입수를 포기하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실정을 감안하면 서가관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훼손되는 학위논문을 수시로 제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와 학위논문 자료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폐가제 열람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위논문 배가 기준은 <표 Ⅲ-10>과 같이 청구기호순 62개관(68.1%), 학교순 13개관(14.3%), 혼합 10개관(11.0%), 입수순 5개관(5.5%), 저지순 1개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66) 최달현, 변우열, 전게서, p. 25.

67) 민기남, 전게서, p. 44.

68) 손문철, 전게서, p. 33.

〈표 III-10〉 학위논문 배가 기준

구	분	도 서 관 수	비 율 (%)
청 구 기 호 순		62	68.1
학 교 순		13	14.3
입 수 순		5	5.5
저 자 순		1	1.1
기 타 (혼 합)		10	11.0
계		91	100.0
무 응 답			

최달현, 변우열⁶⁹⁾에 의하면 청구기호순 배열이 67.5%, 학교순이 10%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청구기호순에 의한 배열이 68.1%나 되는 것은 학위논문 자료를 일반단행본 도서와 동일한 정리방법의 범주에서 정리 배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료를 청구기호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개가계 열람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주제분야의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위논문을 청구기호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료를 청구기호순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리가 완료되어야 하고, 청구기호를 나타내는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므로 학위논문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신속한 정리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69) 최달현, 변우열, 전계서, p.25.

나. 상호협력

학위논문의 상호협력은 미소장본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 학위논문의 상호교환 중지 이후 더욱 강조되어지는 대이용자 서비스의 한 분야이다. 타도서관 이용의뢰서 발급의 경우는 이용자를 자료가 소장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고, 복사서비스의 경우는 소장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소장 학위논문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로 타도서관 이용의뢰서 발급이 52개관(59.8%), 복사서비스 13개관(14.9%), 두 가지를 병행하는 곳이 22개관(25.3%)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이 4개관이었다.

미소장 학위논문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실시의 여부로 구분하여 보면 91개관중 최소한 87개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위논문이 대학도서관에서 중요한 자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에서 미소장 학위논문에 대해 복사서비스를 통한 원문제공이라는 적극적인 서비스보다는 타도서관으로 안내해 주는 소극적인 봉사태도를 더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도서관간 협력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복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한국에서는 1946년 8월 27일 법령 제102호로 공포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의해 서울대학교내에 대학원이 설치⁷⁰⁾되어 1949년 7월 15일 제3회 출

70)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 서울대학교, 1986. p.14.

업식에서 처음으로 6종류(문학, 법학, 경제학, 이학, 공학, 의학)에 걸쳐 석사학위 수여⁷¹⁾된 이후 1993년까지 전국 대학에서 약 336,000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석박사학위 논문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위논문은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1차 정보원인 동시에, 포괄적인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가 개발되어 있고,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2차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학위논문이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와 학습의 기초자료로 활발히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91개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학위논문과 관련된 제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소장현황

가. 학위논문 소장량은 1만권 이하인 곳이 27개관(32.1%), 1만권에서 3만권 이하인 곳이 20개관(25.0%), 8만권을 초과하는 곳이 16개관(19.0%) 등의 순이었으며, 학위논문을 가장 많이 소장한 경우가 20만권이였다.

학위논문을 장서수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서는 포함시키는 곳이 60개관(66.7%), 포함시키지 않는 곳이 30개관(33.3%)이었다.

2. 유통 및 관리실태

가. 학위논문 수집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서관이 35개관(38.5%), 적극적이지 못한 도서관이 56개관(61.5%)이었으며,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서는 인

71) 서울대학교 40년사, p.34.

력 + 공간 부족이 20개관(44.4%), 인력 부족이 13개관(28.9%), 공간 부족이 9개관(20.0%) 등의 순이었다.

나. 학위논문 교환부수는 수증의 경우는 1-10개교가 32개관(45.7%), 11-20개교가 23개관(32.9%) 등의 순이고, 기증의 경우는 30개교를 초과하는 경우가 21개관(25.3%), 11-20개교가 19개관(22.9%) 등이었다.

다. 학위논문을 모두 등록하는 도서관이 47개관(52.8%), 선별하여 등록하는 도서관이 38개관(42.7%), 등록하지 않는 도서관이 4개관(4.5%) 이었으며, 선별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기준은 학위종별(13개관 35.1%), 주제(13개관 35.1%), 학위수여기관(9개관 24.3%) 등의 순이었다.

라. 학위논문 정리형태에 있어서 단행본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도서관이 평균 62.6%였으며 정리기간은 1개월 미만이 평균 51.3%로 나타났다.

마. 학위논문 전산화가 이루어진 도서관이 46개관(52.9%) 이었고, 전산화된 경우 자관소장분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도서관이 40개관(87%)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학위논문 유통 및 관리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학위논문을 국가적 차원에서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학위논문의 수집과 서지작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위가 수여된 이후 납본을 통하여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있으나 제도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료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각 대학원의 협조⁷²⁾를 얻어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될

72) 국회도서관에서는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위논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것을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발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서지통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개의 대학도서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 관리, 제공하는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집,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학위논문 자료의 정리에 있어서 가급적 간략한 정리방법을 택해야 한다. 동일자료의 중복정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낭비를 배제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인력절감과 신속한 정리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간 활발한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서지기술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넷째, 학위논문 관련업무를 진상화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는 망라적으로 하고, 도서관간 상호협력이 가능케 해야한다.

3. 이용실태

가. 학위논문이 소장된 자료실 명칭으로는 정기간행물실이 20개관(22.5%), 논문자료실이 19개관(21.3%), 학위논문실이 16개관(18.0%), 참고열람실이 13개관(14.6%) 등의 순이었으며, 그 명칭이 15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형태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29개관(32.2%), 다른 업무와 겸무하는 곳이 61개관(67.8%)이었다.

나. 학위논문 관리 전담 인원은 1명이 59개관(81.9%), 2명이 11개관(15.3%)이었으며, 인원이 가장 많은 경우가 4명 (1개관(1.4%))이었다.

보조인력은 1명이 26개관(50.0%), 2명이 14개관(26.9%), 3명이 5개관(9.6%) 등이며 11명까지 활용하는 곳이 있었다.

다. 학위논문 열람방식으로 개가제를 실시하는 곳이 71개관(78.0%), 폐가제를

채택하는 곳이 17개관(18.7%), 부분개가제를 실시하는 곳이 3개관(3.3%)이었다.

라. 학위논문을 청구기호순으로 배가하는 곳이 62개관(68.1%), 다른 기준으로 배가하는 곳이 29개관(31.9%)이었다.

학위논문 이용실태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위논문의 열람방식은 철저한 서가관리를 통한 배열유지와, 자료훼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개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부족에 처해 있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대책마련이 불가능할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폐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도모와 자료 보존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위논문의 배가기준은 개가제 열람을 실시할 경우 분류체계에 의한 주제별 배열이 바람직하며, 폐가제 열람을 실시할 경우는 학위수여기관명순이나, 학위논문저자명순 등 정리와는 관계없이 간단하고 추가경비를 들이지 않는 배열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위논문 관리를 위한 인적구성에서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은 자료의 특성상 일반 단행본에 비해 정리, 관리, 이용 등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적절한 보조인력의 활용은 한국 대학도서관이 당면한 인력과 예산부족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Study on the Management & Utilization of These and Dissert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of Korea

Nam Seuk Kim*, Do Hi Cho**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general problems appeared i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heses and dissertation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through the survey and analysis on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Questionnaires were sent to 109 university libraries which offe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during the period between March 7 and March 27, 1995. Responded questionnaires of 91 libraries (about 83%) were processed using SAS.

The results of this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Most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have the collections of theses and dissertations ranging from less than 10,000 volumes (27 libraries; 32.1%); 10,000 to 30,000 volumes (20 libraries; 25.0%); to more than 80,000 volumes (16 libraries; 19.0%). The largest collection was around 200,000 volumes.

2. In the management of them, 35 libraries (38.5%) were active in collecting them, but 56 libraries (61.5%) were not active, mainly for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 Librarian, Dongsan Library, Keimyung University.

shortage of manpower and the space problems.

In 62.6% of libraries, they are arranged with the books. And 51.3% of libraries process them in less than one month.

46 libraries (52.9%) computerize their system, and among them 40 libraries (87%) establish their own databases.

3. The collections of theses and dissertations are called by various name, including periodical room, theses room, reference reading room etc. reaching to 15 kinds.

71 libraries (78.0%) adopt open system, and 17 libraries closed system ; and 2 libraries (3.2%) partial open system. 62 libraries (68.1%) arrange them in the order of call number, while 20 libraries (31.9%) by other criteria.